

만성적자 관광공사 “이럴 바엔 해체를”

제주도의회 행감 이틀째 부실경영 책임 집중추궁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책임도 대책 마련도 없어
 수십억 적자속 기관장·임원 평균임금 전국 최고

매년 수십억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제주관광공사의 부실 경영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타깃이 됐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비판 속에 해체론까지 언급됐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제388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 >> 관련기사 2·3면
 이날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시내면세점 사업 철수와 만성 적자로 총체적 경영 위기 상황에 빠진 제주관광공사의 경영 위기와 조직안전성 문제를 집중 추

궁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공사 출범 이후 전출금 363억원, 인건비 161억원 등의 관광진흥예산이 지원됐지만 최근 3년간 매년 경영평가는 하락해 올해 평가에서 최하위 ‘라’ 등급을 받았다.
 이와관련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제는 도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놓고도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도, 사과도,

대책 마련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규모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 관광공사를 차라리 없애고 ‘재단’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갑)도 “이럴 바엔 공사를 해체시켜야 한다는 정도의 심정”이라고 거들었다.
 안창남 위원장(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도 “인건비 수십억 적자라는 공사가 필요한지 의회에서 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사의 경영위기에 대해 기관장·임원의 평균임금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제주관광공사가 경영 평가 최하위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임원의 평균임금은 경기관광공사 다음 2순위인 반면 직원과 신입 사원의 평균임금은 각각 5위, 최하위인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현장행 본부장은 “경영 위기상황을 느끼고 비상경영노력도 하고 있다”면서 “조기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각 상임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를 비롯, 침체된 크루즈산업, 고질적인 농업인력 부족 등과 함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영개선 자구책 요원, 제주도 어업지도선의 유명무실, 제주도정의 코로나19 대응전략·웰니스 관광 추진 의지 미흡 등이 도마에 올랐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 공공기관 4곳 인재 통합선발 나서

29일부터 인터넷 원서 접수
 필기시험은 11월 14일 실시

제3회 통합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11월 14일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에 따른 시험을 공고하고, 제주에너지공사 등 4개 기관에서 모두 22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직원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기업과 협력해 지난해부터 통합채용을 하고 있다.

이번 기관별 채용 인력은 제주에너지공사 3명, (재)제주문화예술회관 6명,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6명, (재)서귀포의료원 총무과 7명 등이다.
 통합채용에 따른 직렬(직급)별 선발 인원, 기관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가을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백록담 16일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지난달 초까지만해도 많은 비를 동반한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물이 들어찼던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내부가 가을 가뭄이 이어지면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시험일정 등 시험 관련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의 공공기관 직원 채용 정보나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로 제주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jeju.incruit.com)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시자는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기관별 채용사이트 이동해 개별 접수하면 된다.
 기관 또는 분야별 중복 접수는 불가능하며 응시 자격은 일정기간 제

주도내 거주자 등으로 제한된다.
 이는 이와관련 공공기관의 공정채용 및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만큼 지역인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시를 당부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한리일보는 오는 17일 갤러리 ED에서 '가을여행 - 3인 3색'전을 개최합니다.
 제주의 자연과 풍경을 독특한 화풍과 따뜻한 감성으로 담아내는 **고은 작가**와 선들의 집합을 통해서 생명력을 전달하는 **김성오 작가**, 공필화 기법으로 제주의 자연을 평온한 화풍으로 담아내는 **이미선 작가**의 작품 40여 점이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소한 풍광들 속에서 무심히 지나왔던 소소한 일상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은·김성오·이미선 초대전
 3인 3색展
 가을의정령 Gallery ED

2020. 10. 17(토) ~ 11. 27(금)

·전시 오픈닝: 2020년 10월 17일(토) 오후 3시
 ·장소: 한리일보사 1층 갤러리 ED
 ·문의: ☎ 064)750-2543

4·3트라우마센터 주민치유 성과

개소 5달 만에 384명 등록
 시설 이용·프로그램 참여
 '제주형 트라우마센터' 자리

4·3트라우마센터가 다양한 치유프로그램과 강정마을 방문 치유 등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트라우마센터는 개소 5달 만에 이용자 등록 384명, 시설이용 내소자 6336명을 기록 중이다.

4·3트라우마센터는 그동안 주간, 월간 단위의 정형적 치유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술 치유(44회, 394명)를 비롯하여 전문심리 프로그램(6회 62명), 4·3이야기 마당(12회 338명), 치유의 밥상(16회 305명), 소그룹 운동(9회, 74명) 등의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진행했다.

또한 심리상담(20건)과 물리치료·도수치료(2351건)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아울러 4·3트라우마센터는 강정마을 주민 치유에도 다가서기 시작했다. 마을자치회 등 자생단체와의 신뢰 구축을 통해 지난 7월에는 강정마을 부인회 30여명을 대상으로 궁정

심리 치유, 4·3유적지 기행, 숲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이어 10월에는 강정마을 노인회원 대상 음악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4·3트라우마센터는 앞으로 피해자들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조성하고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심리상담사 네트워크, 치유프로그램 전문가 네트워크, 4·3단체 등 지역 공동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국내외 교류 및 협력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내소 불가능한 희생자와 유족, 강정주민, 원거리 내소자 등을 위한 방문 치유 사례관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4·3트라우마센터는 지난 5월6일 나라키움 제주북향관사(옛 제주세무서)에서 개소했다.

제주도는 올해 운영비 등 6억5400만원을 투입하고 센터 운영은 4·3평화재단이 맡고 있다. 현재 파악되는 치유대상자는 후유장애인, 수형인, 1세대 유족 및 미느리, 그의 국가사업에 의한 피해자 등 1만8000여명에 이른다. 백금탁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프로페셔널 리더의 자존심! 회계법인 청담이 지킵니다.
회계 및 세무 자문,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중견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회계법인 청담은 공인회계사의 전통적인 업무영역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기업진단은 물론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특화된 업무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담 회계법인 청담
 Accounting corporation CHEONGDAM

공인회계사/세무사 **양우석**
 공인회계사/세무사 **고정민**
 공인회계사/세무사 **양태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남로 6길 30(오라일동) 2층
 Tel.(064)900-2301~5, Fax.(064)900-2306

· 조세복합 업무
 ·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운용사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
 · 기업경영과 컨설팅

세무, 회계, 경영관리, 자금 등의 해결! 회계법인 청담의 전문가 그룹이 함께합니다.